

11

가정예배 안내서

1993

충현의 만나

역대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2.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을 위하여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 충만을 위하여
4. 제2회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5. 교회학교와 찬양대와 교회의 모든 위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하여
6.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하여
7. 세계 선교 사역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3년 1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11월호 집필을 위하여 이조웅·조동원·이종대·정광욱·
김수상·박정규 목사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역대기 서론

역사 문학에 속하는 역대기는 본문의 내용 자체로는 기록자가 누구인지 확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백성과 왕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는 주로 유다의 역사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역대상은 사무엘서와, 역대하는 열왕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역대기의 주제는 ‘여호와와 통치’이다. 역대기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생활 후 본국으로 돌아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의 지도를 받으며 예루살렘을 재건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다.

기록 목적은 첫째, 사울에서 고레스에 이르는 시기의 제사장적인 예배의 역사를 서술하여 유다 중심의 종교적인 역사를 제공해주는 데 있으며 둘째,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오셨는가 하는 점을 역사를 통해서 입증해보이려는 데 있다.

역대기의 내용을 대분해보면 ①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대상 1장~9장) ② 다윗의 통치(대상 10장~29장) ③ 솔로몬의 통치(대하 1장~9장) ④ 유다의 열왕들(대하 10장~36장)이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14:6)

아사왕은 르호보암의 손자요 아비아왕의 태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의 선군 중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결코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진정한 선과 정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과 정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정의는 바로 우상타파입니다. 아사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혈육의 정도 끊어야 했습니다(15:16). 우상숭배를 옹호하는 할머니 마야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하는 모든 이들을 타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과 정의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행위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고, 정의를 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참된 개혁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참된 개혁의 길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며”(4절) 하는 일에 있음을 아사왕은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소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15:7)

아사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스사람 세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개선하며 돌아왔습니다. 본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사라가 예언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7절). 이 상급을 받기 원하는 자는 먼저 “손이 약하지 않게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란 세상 유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의해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에 확신이 넘치는 믿음입니다. 소망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2절).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소망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2절). 우리에게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축복과 저주의 중간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리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소유해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상급받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5:15)

본문은 여호와를 찾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온 나라 안에 평안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 평안을 받기까지 유다백성은 선지자의 말에 절대 순종했습니다(8절). 즉 선지자 아사라의 예언을 듣고서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단호하게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찾기로 언약했습니다(12절). 이 결단은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13절). 그러므로 유다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은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을 되돌아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8절에서 유다백성들의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 안에 있는 가증한 물건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우상까지도 제하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설교를 통하여 이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유다백성은 회개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즉 주님 앞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를 통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 14:27)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 살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어 살아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여호와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16:9)

우리는 현재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됩니다. 본문은 아사왕의 실정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불신을 저질렀습니다. 그 불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뢰한 것입니다(16:7).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는 환난을 당함으로 아사왕의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손이 아람 왕에게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힌 환난을 보며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는 아사왕의 신앙이 연약해진 까닭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체험도 잊어버렸습니다(14:0-15). 그는 마땅히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의 믿음도 잊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성도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힘이란 한낱 콧김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사 2:22).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언행심사를 그의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 사람을 의지했던 아사왕은 피부병이 들게 되었고, 죽기까지 하나님보다 의원들에게 병낫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아사왕이 교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배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의원이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란 없습니다(렘 8:22)

▶ 기도 /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충현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17:5)

구약에서 손은 흔히 권력, 능력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유다왕국을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첫째, 그를 통한 정권 확립과 국력의 신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사밧의 부친 아사가 통치 말년에 실정으로 국력을 약화시켰으나(16:9),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계명을 준수하므로 다시금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여호사밧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부귀와 영광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축복이 솔로몬과 다윗이 받은 축복과 비길 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첫째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3절), 둘째로 여호사밧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와 말씀의 따라 행하여 순종할 때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양떼에 마음을 두며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로 목양하는 사랑의 목자가 되게 하소서.

『저희가 여호와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17:9)

유다 왕국에 영적 각성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함으로 우상을 섬기며 저주를 받았던 일들을 기억하며 유다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배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 속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면서 말씀 배우는 일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면 열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더욱 유다 사면에 있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 더욱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만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썩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패된 부분을 치료하여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읽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유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 기도 /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소서. 모든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는 충성스런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꺾어 저로 길르앗 리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18:19)

여호사밧은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유다의 7대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잘못이 있다면 북조의 악한 왕 아합과 더불어 혼인의 관계를 맺고 길르앗 리못을 치기 위해 동맹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선지자들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사백명의 선지자들은 아합과 여호사밧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말합니다. 즉 싸우면 승리하겠다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바른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과 여호사밧왕의 패전을 선언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소수라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편이면 그곳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이라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대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신앙 양심을 지키기에는 소수라는 불리함과, 세상 권력과, 심지어는 성난 파도보다 더 강한 세상의 풍조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의 생활 중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며, 그러한 생활중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 기도 / 충현교회와 한국 교회는 복음의 진리만 외치고 고수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의 수고에 복을 주시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소서.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게 하라』(18:26)

여호사밧 시대의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코 거짓된 영의 속삭임을 받아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눈 앞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절대 진리되는 그 분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크게 보입니다.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더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눈 앞의 행복을 포기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까지 감수해야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것이 보상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됩니다.

본문의 미가야 선지자는 눈을 한 번 질끈 감고, 한번 혀를 다르게 놀렸으면 그에게 고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중요하기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즉 감옥 생활을 하며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며 바르게 예언했습니다. 과연 미가야의 예언은 맞았으며 길르앗 라못 싸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람군에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아합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섭리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안전하지만,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안전 장치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 기도 /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 결신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의 가정에 환난이 없고 형통한 길을 주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19:11)

여호사밧왕은 불신자 즉 여호와를 전심으로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무분별한 연합으로 전장에서 쓰라린 패배를 당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여호사밧은 궁으로 돌아온 후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전국을 순행하게 됩니다. 이는 곧 1차 개혁(대하 17:7-9)에 이은 2차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1차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였다면, 2차 개혁은 신앙에 근거한 사법제도를 개선하여 공의의 통치를 통하여 백성들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사법 행정에 대한 개혁은 율법(출 18:13-26; 신 17:8-13)에 근거를 두었으며, 재판관들은 민사, 형사 및 종교사건도 함께 재판케 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은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여 재판관 제도를 정비하므로, 아람과의 전쟁 후에 성행될 우상숭배와 각종 범죄와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여, 유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안정을 꾀한 것입니다.

본래 유다의 재판제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의 절차나 제도보다는 재판관의 신앙 양심을 더 우선으로 여겼습니다(6-9절).

이런 점에서 여호사밧의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명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 기도 / 국가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되 이 백성 중에 그릇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각 교구 일꾼들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기도해 전혀 힘쓰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20:3)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고통과 환난을 당합니다. 본문의 여호사밧에게도 모압과 암몬, 마온 세 민족의 연합 침공이라는 큰 환난이 발등의 불처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런 환난이 닥친 이유는 외적으로 아라비아와의 해상 무역권 쟁탈을 위한 전령이며, 내적으로는 북조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손잡고 그를 동조한 범죄(대하 19:2)를 징계키 위한 것입니다. 모압 연합군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바로 내적인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로 전쟁을 일으킨신 분은 하나님이 시기에 전쟁의 승패도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이 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방법은 그 자신과 온 백성들과 더불어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절히 의지하는 신앙고백의 기도입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여 솔로몬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나의 기도는 간혹 중언부언하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한 기도 즉 성경 말씀에 의지한 기도여야 합니다. 둘째 여호사밧은 개인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유다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시다.

▶ 기도 / 북녘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칠 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휴전선을 여시면 담대히 복음 들고 가게 하소서.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고로 ……」(20:29)

스케이트 선수인 발렌틴 비알리스(Valentine Bialis)는 1924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빙상계의 제왕으로 등극되었습니다. 그후 세계 선수권대회를 위해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늦은 저녁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차창에는 김까지 서려서 운전하기에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팡! 소리와 함께 그는 급히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빙상계의 세계 챔피언이 되는 꿈과 인생의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년 후 신문의 기사에 ‘정구 챔피언 발렌티 비알리스’라는 머릿글과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나는 교통사고 후 심한 절망감에 빠졌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자포자기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갔는데 내가 처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려고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나의 두 손을 굳게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인 줄 몰랐습니다만 ……」 그 이후로 나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삶의 의욕과 희망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정구 챔피언이 된 것도 모두 주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승리주신 하나님께서 비알리스에게도 새 출발을 주셨습니다. 자! 기도로 승리합시다

▶ 기도 /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다』(20:25)

개구리를 물에 넣고 그 물의 온도를 약간씩 데우면(매초 0.036 F) 온도 변화가 매우 극미하여 개구리가 그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결국엔 두 시간 반 정도 후에 죽어버린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즉 물이 너무도 서서히 데워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여 그 환경에 한 번 저항해보지도 못하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는다면, 그 개구리는 자기가 악조건에 처했음을 즉각 감지하고 평상시 가지고 있던 놀라운 점프력을 발휘하여 그 뜨거운 물에서 뛰쳐나왔을 것이라고 실험자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죄악의 성질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즉 처음에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극미한 세력으로 우리를 침투하기 시작하여 결국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마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이나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들로 인해 결국엔 자신의 여호와 신앙이 훼손될 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종교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동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합 사업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손잡는 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 배를 산산히 부숴지게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멧을 같이 매지 맙시다. 믿는 자들과 더불어 좋은 것을 나눕시다.

▶ 기도 /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뒤를 쫓아 가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고로 왕위를 주었더니』(21:3)

사람들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귀한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왕은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첫째, 여호사밧은 자식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을 아주 많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임금이었으므로 그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왕자들에게 돌아간 은, 금, 보물은 엄청난 양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들에게 이러한 재물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모들이 세계 각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자식들을 바로 이끌어줍니까? 사람의 생명과 인격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 있지 않습니다(눅 12:15). 둘째, 그는 자식들에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세계 곳곳에 나가서 좋은 지역들을 돈주고 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땅을 자기 땅으로 삼아 크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과연 큰 땅을 물려 받은 자녀들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며, 그것을 바로 사용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땅을 더욱 확장하려고 애쓰며 그 땅을 의지하고 민족을 누리며 살아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참 생명이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까? 디모데의 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딤후 1:5). 우리도 우리 자손에게 성경, 기도, 찬송, 전도 등 삶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을 물려 주십시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주관하셔서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으로 원주민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분열하여 스스로 그들의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22:3)

아하시야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첫째, 그가 간 길은 아합의 집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아합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숭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가서는 안될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둘째, 모친의 꾀임을 받아서 악으로 간 길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고,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죄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면서 그곳의 죄의 유혹에 빠졌고,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유혹받기 쉬운 본성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과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거나 서거나 달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를 받을진대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민족을 위해 3일간 금식기도 하자고 한 에스더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생활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서로서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관계이어야 하겠습니다. 대신 죄의 유혹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마 4:10, 16:23)

▶ 기도 /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축복하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가 많은 유럽이 그 패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제 칠년에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벧의 아들 ……」』(23:1)

본문에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 그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조용히 인내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때는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해야 할 때 소란을 피우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할 때 성급히 뛰쳐 나가면 일이 뒤틀려집니다. 준비해야 할 때 자꾸 일하려고 하면 그 르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6년이란 기간을 허송세월 하지 않고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7년째 이르러서 세력을 내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할 때라고 깨닫고서 지체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마땅히 일해야 할 때에 용기를 내어서 일하는 것 또한 준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있는 자같이 하여”(엡 5:15) 라는 말씀과 같이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둘째, 그는 계획성 있게 일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들을 규합하며, 무너진 다윗 왕조를 세우기 위해 군대 병력을 정리하고, 마침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반역자 이달라를 제거하는 큰 일을 차근차근 철저하게 성취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깨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도면밀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 기도 /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일할 때 실수함 없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을 통해서 모슬렘의 악한 영들이 그 어둠의 장막을 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와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23:16)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결심과도 같습니다(수 24:15).

첫째, 여호와와 백성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입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여호와와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여호와와 법도를 기꺼이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여호와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생명을 드린 존재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살고, 여호와 때문에 죽고, 여호와 때문에 목적과 이유가 있는 백성입니다.

둘째, 여호와와 백성은 땅에 사는 동안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백성입니다. 여호와와 백성이라고 해서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에 올라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땅을 밟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시험도 봐야 하고, 차도 타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땅에서 하는 일들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버리고 말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결단코 어느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호와와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기도 /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통하여 현지인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게 기도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여호아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와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24:14)

여호아다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겼습니다. 일이 있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될 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날에 항상 경배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경계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로지 예배, 예배 하면서 생활의 열매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것은 위선자의 삶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삶이면 다 된다는 생활방식입니다. 현대인에게 호감이 가는 이론이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배만으로는, 삶만으로는 아닌, 예배와 삶을 함께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현대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의미있다 하겠습니다. 즉,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를 결단코 등한히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또 직장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어찌할 수 없이 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예배야 어찌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창 12:8)고 하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예배를 드리는 평생이 되어보십시오.

▶ 기도 /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에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을 통하여 중국이 복음으로 열릴 때, 그들이 복음을 들고 모슬렘으로 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소서.

『요아스왕이 이와 같이 스가라의 아비 여호아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쳐죽이니』 (24:22)

요아스왕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아다가 죽은 다음입니다. 여호아다는 요아스를 6년 이상 숨기고 있다가 왕위에 올려 놓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요아스가 우상숭배의 길로 달려갈 때 여호아다의 아들 스가라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스가라를 돌로 쳐죽였습니다. 요아스왕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보다도 더 끔찍하고 매정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상 악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죄의 진상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다른 많은 비슷한 길들을 지식과 종교들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모조품이요 가짜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생각대로 살던 요아스왕은 생명의 은인인 여호아다의 아들 스가라를 죽인 다음, 자신도 부하들의 손에 의해 침상에서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전쟁입니다. 정치 전쟁, 경제 전쟁, 군사 전쟁, 기술 전쟁, 핵 전쟁 평화의 길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육과 정치와 회담들이 있고 과학과 기술 혁신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안에 들어 올 때만 평화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있습니까? 충성 헌신하고 있습니까? 열과 성을 다해 충성하십시오.

▶ 기도 / 범사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소서. 김창수 목사(수리남)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찬송 : 265장 본문 : 대하 25:1-13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25:4)

본문은 유다 왕국의 제9대 왕인 아마샤의 선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립한 후 부왕인 요아스에게 복수를 하였으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한을 갚은 것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았는데 이것은 바로 정의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루만이라도 법이 없다면 당장 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복들을 다 처단하면서도 그 자녀는 하나도 죽이지 않은 것은 그 마음속에 자비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는 후한이 두려워서라도 그 자녀까지 다 죽이는 것이 통례였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을 받아들여 그 자녀는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왕다운 관용과 친절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비를 행동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의 기반을 확립한 후 역로함 시대에 유다 왕국을 배반한 에돔을 정벌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마샤는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했다가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돌려 보내는 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므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선지자를 통해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한 길이요 바로 축복과 성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 기도 /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님(일본)과 사모님(이윤호 권사)의 사역을 통하여 일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증거되게 하소서.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25:14)

본문은 아마샤의 악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만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배척하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잘 섬겨야 하겠거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샤는 에돔을 치는 일에 성공을 거두자 자기 우월감에 빠져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실로 허황된 교만이 엄청난 야망을 낳았습니다. 스스로 아마샤는 패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야망에 찬 아마샤는 이제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벽은 헐리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도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 쫓겨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다가 자신의 아버지처럼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 마지막까지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 기도 / 형통할 때 겸손하며 환란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기성·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집이더라』
(26:15)

본문은 웃시야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크게 번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이는 스가라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웃시야의 형통의 원인은 웃시야의 지도력이 훌륭하고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웃시야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분께 구하는 동안은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그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고 암몬 사람들의 조공을 받게 하셨고 주위의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가 나가서 다른 나라를 치는 동안에도 방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망대를 세워 견고케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벽들이 그의 아버지 시대에 부수워졌으며 성 모퉁이 문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 모퉁이 문에 망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산업을 발전시켜 무역과 목축과 농업에 힘을 기울여 내적 번영도 이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구하는 자를 형통케 하시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갔음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스스로 나타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만 구하여 형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장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26:16)

본문은 웃시아왕의 후반 통치기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징계를 받는 기록입니다. 아마사가 교만하여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기 시작한 것처럼 웃시아왕도 마음이 교만하여 신성모독적인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여 성소에서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이 범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권고를 무시하는 죄도 범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웃시아의 범죄는 범죄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형벌인 문둥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던 그는 순식간에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버림받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부귀와 권세와 명예가 사라지고 병든 육체와 고립된 형벌을 받았습니다. 웃시아는 문둥병이 발하므로 평생을 부정하게 되었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한 보응은 그로 모든 사람에게 격리된 결과를 가져다 주었고 더욱이 열조와 함께 묻히지 못하고 따로 안치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 마음이 교만해진 웃시아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형태의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함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김형선 · 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 이민 오는 교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27:6)

본문은 요담왕의 통치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요담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웃시아를 대신하여 국사를 돌아보다가 웃시아가 죽자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하여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요담은 왕위에 오르자 웃시아의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므로 유다는 모처럼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는 부친이 보여준 모본을 충실히 따랐으나 옳지 못한 것은 버렸습니다. 그는 부친이 잘못으로 징계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본받고 악한 것은 버렸습니다. 또 본문은 요담의 어머니가 대제사장인 사독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서 경건한 신앙을 소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담왕은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으로 성장하고 훌륭한 신앙의 왕으로써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정도를 지키면 강성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는 성전을 증축하고 전국의 성읍마다 견고한 영채를 건축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수리하고 꾸민 것은 여호와의 전 윗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대 산중에 성읍을 건축했으며 그의 나라를 튼튼히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사람들을 정복하여 조공국으로 만들고 주위 나라가 두려워하여 요담과 화친을 맺기도하여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도를 지키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성하고 형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정도로 걸어 갑시다.

▶ 기도 / 하나님 앞에서 평생 정도로 행하므로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의 사역을 통하여 일본의 방황하는 영혼들과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교포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28:6)

본문은 유다의 소대 왕이었던 아하스의 통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왕들 중에 가장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진 왕으로 나라를 극도로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대치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죄악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몰록 우상숭배를 복구하여 성벽 밑 힌놈의 골짜기에 그 신상을 세우고 그 자녀를 불사르는 극악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런 관행은 율법으로 금지되었는데도 아하스는 사악한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사람의 생명, 그것도 자기 자녀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그들의 생명도 가볍게 여겨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아합 왕의 손에 붙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또 북이스라엘왕의 손에 붙여서 크게 살육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루 동안에 12만명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약탈되고 20만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기도할 뿐 아니라 악한 길로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우상과 불상과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되게 하소서. 고은벤 평신도 선교사(케냐)의 사역으로 기근과 내전으로 병들어 있는 아프리카가 고침받게 하소서.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28: 19)

유다 열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는 왕들의 행위를 유다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기준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유다는 흥왕하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할 때는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은 아하스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벌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의 범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는 바알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침략군들이 섬기는 신이 유다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다가 패배했다고 하며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훼파하고 여호와와의 전 문을 닫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여호와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범죄로 인해 유다는 에돔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앗수르 왕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차라리 유다의 패배가 자신의 죄로 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아하스처럼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매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돕고 있는 개척 교회와 미자립 교회 위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덮으사 의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좇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케 할새』(29:15)

히스기야왕의 아버지 아하스왕은 성전을 훼파하고 성전의 문을 닫고 우상숭배를 조장하였으며 그 죄로 인하여 외국의 침공을 당하자 그는 더욱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을 멀리 하고 앗수르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도리어 앗수르의 간섭 아래 있게 했습니다.

이를 보아 온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단행한 일이 바로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청결케 하였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 그의 아버지가 폐쇄했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며 성소의 모든 기구를 청결케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한 일 중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사실은 오늘 요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자신이 먼저 성결케 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성전을 깨끗이 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참된 개혁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을 두고 자신을 개혁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결국 성전 청결 운동은 말씀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깨끗이 되는 데는 성도들이 먼저 깨끗해야 하는데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러운 생각과 추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 갈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깨끗한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날마다 깨끗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부와 예배다부원들에게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주소서.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29:24)

히스기야왕이 성전 청결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본 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속죄제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사함 받기 위하여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유다가 앗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단순히 속죄제사만 드리지 않고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는 번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즉 속죄의 은총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제도를 통하여 화해의 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여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 제물과 번제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떠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히 10:10-18)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아무 공로없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유다 백성들이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린 것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어려운 이웃을 볼 때에 애통해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돕게 하소서.

『보발군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을 좇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30:6)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의 규례는 대대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출 12:14).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여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아왕 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아왕은 유월절을 지키자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즉 북이스라엘 왕국도 포함하였습니다. 자신의 통치 한계를 벗어난 북이스라엘까지도 그러한 축구를 하기 위하여 보발군을 보낸 것입니다. 보발군들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6절), 즉 언약의 하나님임을 전했습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7절)을 전했으며 사랑의 하나님(9절)을 전했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며 목을 곧게 하는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보발군의 메시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백성들은 겸비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역사 속의 예수님으로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30:20)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대대로 지키는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다가 히스기야의 촉구로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들이 비록 유월절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즉위한 그해 2월 14일에 지켰습니다(15절).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출 12:2, 14). 그러나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 군복무 등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2월 14일에 지킬 수가 있기(민 9:10-11) 때문에 백성들이 2월 14일에 지킨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먼저 우상숭배하던 것들을 다 내어버렸습니다(14절).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아 유월절 의식을 집행하고(15, 16절) 또 부정한 사람들을 성결케 하였습니다(17절).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케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려 할때 히스기야는 재빨리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효과와 필요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랑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남의 허물을 홍보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상한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 왔고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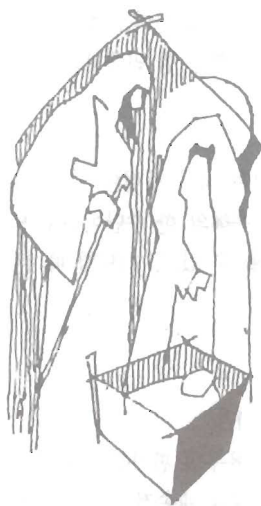
히스기야왕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우상을 멸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정하여 그 직임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개혁운동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열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해서 십일조를 드린 것입니다. 십일조의 제도는 히스기야가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십일조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창 14:20). 히스기야는 단지 옛 제도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드림의 삶을 힘쓰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 그들은 자원하여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이 헌물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몹 혹은 분깃)으로 드려진 것이었으므로(4절)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성전 봉사에 전념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16-19절). 그러나 율법에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구제용 십일조를 정하고 있습니다(신 14:29).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말 3:10-12). 하나님은 십일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10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많은 복을 받읍시다.

▶ 기도 / 십일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11월에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바라며 12월을 맞게 하소서.

양육 특별 공과



생명의 줄

· 찬송 : 480장, 482장 · 본문 : 빌 4:4-7

· 요절 : 빌 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더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했고, 종교개혁자 요한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1. 기도의 정의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과 갖는 영적교제로, 은혜의 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2. 기도의 상징적 용어

(1) 영혼의 호흡(살전 5:17)

기도란 영적 생명의 유무의 판가름이 되며, 부단히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변함없는 은혜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 영혼의 싸움(갈 5:17; 벧전 2:11; 롬 7:24)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혼을 거스리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써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3) 만능의 열쇠

엘리아라는 성경의 인물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도를 했습니다(약 5:17, 18).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능
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 기도하는 이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잠 15:8). 기도하는 자는 은혜받고 기도 응답
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해서는 안됩니다. 기도
라는 생명의 밧줄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 용

1. 나에게 있어서 기도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요소는 무엇인
가?(예: 게으름, 불신, ……)

2. 나는 하루의 일과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 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과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기도를 많이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성도와 시험

· 찬송 : 395장, 411장 · 본문 : 약 1:2-4

· 요절 : 약 1:2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는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 탄탄대로의 평안한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듯한 어려운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은 잘 이겨내면 우리의 신앙을 살찌우고 축복받는 길을 가게 하는 뜻단배의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1. 시험의 원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약 1:2). 때로는 악한 사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의 욕망, 죄를 통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나오다가도 시험당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2. 시험을 대하는 태도

성경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필수과목(?)인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되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약 1:2). 이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만날 때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성과 부족함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

나님의 섭리 속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3. 시험의 유의

오늘 본문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시험의 결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시험과 고난 속에서 성장하여 종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시험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종내는 승리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려야 하겠습니다.

·적 용

1.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통로는 무엇인가?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 -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2. 나는 시험 속에서 원망하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있는가?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망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성령충만한 성도

· 찬송 : 177장, 179장 · 본문 : 엡 5:15-21

· 요절 : 엡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신앙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성령충만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이는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전자의 욕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후자의 욕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1.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닌 인격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줍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자로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축복의 길로서 구속을 집행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구속을 적용해서 모든 진리를 실행토록 하여 생명을 얻도록 안내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하며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행 9:31) 가르쳐주시고(요 14:6) 상담해주십니다(요 16:13).

2. 성령충만한 삶

충만이란 것은 '가득 채워진 상태', 성령과 연관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중생(重生)이

나 성령의 내주를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은 믿을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령충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담대히 회개하고 단호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성령충만한 성도는 기쁨으로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서 종내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을 뿐만아니라 이 땅위에서의 삶도 복되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적 용

1. 나는 성령충만한 삶을 위해 얼마나 기대하고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2. 나에게 있어 성령충만을 제한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의미있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성도와 교제 생활

· 찬송 : 278장, 458장 · 본문 : 고전 12:12-27
· 요절 : 고전 12: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현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를 들라면 교제가 메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화, 기계화, 물질화, 대형화됨에 따라 공동체가 서로를 느끼게 해주고 확인시켜주는 살아 있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는 퇴색해지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나타남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제란 자기 희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1. 교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이면 불타는 석탄과 같이 열심이 생기지만 흩어지면 타오르던 열정이 곧 식고 맙니다. 교회 출석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서로 권하여 모이기에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2. 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유기체

요 한 가족과 같습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이렇듯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현상이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교회 출석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3. 몸의 유지와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초대 교인들이 힘쓴 네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1) _____ 이는 복음을 명확히 알고 그 기반 위에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신앙의 근거가 상실됩니다.

(2) _____ 지체 간에 서로 돕고 연결되기 위한 것으로 이에는 물질적(행 4:32), 정신적(빌 2:1; 고전 12:26), 영적인 거까지 포함됩니다(빌 1:4,5; 롬1:11).

(3) _____ 예찬은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며 성찬은 그리스도의 _____ 몸인 떡에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4) _____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선으로 신앙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적 용

1. 나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2. 교회가 나의 삶에 주는 기쁨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기 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구역 식구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 의식을 허락하소서.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